



# '89 石油産業

## 규제합리화

### 추진시책안



李 福 載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팀장〉

이 글은 지난 12월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석유산업규제 합리화 추진시책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李福載 박사가 발표한 주제발표를 전재한 것이다.〈편집자 주〉

## 1. 규제합리화 추진을 가능케하는 여건 변화

○국내 가격구조의 개선

-구조개선 위주의 지속적인 유종간 차등인하 조정으로 국내 유종간 가격구조가 국제가격구조에 크게 접근

	1986		현 재	
	국 내	싱가포르	국 내	싱가포르
휘발유	190	130	164	104
등 유	114	115	113	103
경 유	100	100	100	100
B-C油	73	70	57	62
L P G	109	91	82	75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 증대

-油田개발 투자 및 석유화학산업 진출로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석유정제시설 증설 및 시설고도화 투자 진행중

·정제시설 증설: 3개사 총 400천 B/D

·중질유분해시설: 3개사 총 80천 B/D

-국내 石油수요의 경질화에 따른 수요구조의 선진국화

○국내 石油시황 안정에 따른 소비자 대응능력 제고 가능

## 2. '89 석유산업규제 합리화 추진시책

(1) B-C油 가격 자유화

(현 황)

○현행 국내 B-C油 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에 접근된 만큼 가격 자유화 시에도 가격 급변 가능성이 없음.

(단위: 저유황기준, \$/B)

	1987말	1988년 3월	1988년 6월	1988년 11월
국내공장도(A)	22.3	20.6	18.8	17.8
수입 가격(B)	21.0	17.0	17.3	20.2
(C I F)	(17.1)	(13.8)	(13.1)	(12.0)
(기 금)*	(3.9)	(3.2)	(4.2)	(8.2)
A / B	106	121	109	88

註: \*B-C油 가격수준 감안 차등기금 부과를 가정

○공급자 및 소비자가 다같이 Bargaining Power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급자의 독과점 폐해 발생이 불가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일정율(40%수준)의 B-C油 시장확보 불가피

-대부분이 대규모 소비자인 만큼 적정 대응능력 보유

○소비자의 국제 석유시황 변화에 대응한 적정 구매 능력 배양 필요

○국제油價 및 환율 변동 효과의 즉각적인 소비자 환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보완요구 증대

(추진시책)

○1단계 ('89 상반기):B-C油 가격의 국제가 연동제 실시

-연동기준:싱가폴 FOB가격 및 환율

-연동방식:연동공식에 의한 월별 연동가격 고시

○2단계 ('89.7.1):B-C油에 대한 가격고시 폐지

(보완조치)

○B-C油 수급조정위원회 설치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로 구성

-수요자의 공급가격 조정 의뢰시 심의후 정부에 소정권한 발동 건의권 보유

-B-C油 수입추천권 보유

○수입 B-C油에 대한 차등기금 부과

-B-C油 가격수준이 반영된 기금 부과

(2) 나프타가격 자유화

(현황)

○'89년 10월 국내 나프타가격의 현실화로 가격격차 완전해소

-국내 나프타가격을 수입도착 가격에 연동

○나프타 수입은 자유화 되어 있는 반면 수출은 규제되고 있는 만큼 자유화에 따른 독과점 폐해 발생이 불가

(추진시책)

○나프타 연동제 실시

○나프타 수출입 자유화

(3) 정유산업 규제 완화

(현황)

○'88.9월 정유산업 증설허가로 '92년까지 정유사별 경제단위화 달성 전망

○수요구조의 輕質化 및 低硫黃化에 따른 보완시설 투자 필요

-취발유 생산시설 등

(추진시책)

○증설규제의 대폭 완화

-상업증류시설을 제외한 기타시설에 대한 허가제 폐지

(4) 石油 수출입 규제 완화

(현황)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입 규모확대 불가피

-수요 경질화에 따른 重質油 수출 불가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低硫黃油 수입량 증가

○정유산업의 수출능력 배양

-임가공제도 운영을 통한 수출경험 축적

-原油 현물구입 활성화에 따른 국제정보 분석능력 확보

○불필요한 수출입 규제는 오히려 파행적 수출입 형태를 야기

-임가공을 이용한 변태적 수출 발생

(추진시책)

○석유제품 수출제한의 완화

-B-C油, 나프타 수출 추천제 폐지

-他 석유제품 수출의 대폭 허용

○유통업자에 석유수입권 부여(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정유사의 유통부문 참여 허용(총 주유소의 일정한 비율 한도 내에서)

(5) 油價관리 제도의 개선

(현황)

○5社 평균 油價관리제도에 따라 비합리적인 부담 발생 가능

-특정사의 경영외적 비용 감소(예:원유비 감소)가

타사의 부실화를 초래(정산익회수)

- 사후 정산제도는 경영의 안정성 저해 및 비경제적 영업행위 유발
  - 1년후 정제비를 정산함에 따라 당해년 영업결과가 사후에 변동가능
  - 정산익 환수 기금의 증감이라는 과거 영업결과에 대한 비용변동은 현재의 경제성에 영향을 크게 줌
-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비난 상존 (추진시책)
- 정산익 기금의 별도 부과
  - 정산익 기금 부담회피를 위한 비경제적 영업행위 방지
- 5社평균 유가관리제도의 보완
  - 정상적인 비용경쟁 효과에는 5사평균 원칙을 적용
  - 비정상적인 비용경쟁 효과는 사별 처리원칙을 적용

· 기금차액은 사별징수

- 표준정제비 방식 도입

### 3. 추가 검토 과제

- 휘발유, 등·경유 및 LPG 가격 자유화 추진방안 검토
  - 제품별 자유화폭 확대방안 및 유통단계별 자유화 방안의 비교 검토
  - 자유화 전단계로서 국제油價 및 환율 연동제도 도입 추진
- 신규참입 완화 관련 예시제 실시방안 검토
  - 정유업 및 유통업의 점진적 자유화폭 확대 및 구조 개선
- 석유제품 수입제한 완화 방안 검토 ☑

### □ 해외기술동향 □

## 日本 三菱石油 輕質나프타로 高옥탄휘발유 생산하는 신공법 개발

輕質나프타에서 高옥탄價의 휘발유를 값싸게 생산하는 새로운 공법이 日本에서 개발됐다.

최근 日本의 三菱石油은 千代田建設과 공동으로 輕質나프타에서 高옥탄價 휘발유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高옥탄價 휘발유는 지금까지 重質나프타에서만 생산이 가능했으나, 제오라이트계의 새 촉매를 개발함으로써 重質나프타 보다 값싼 輕質나프타에서 옥탄價 100 이상의 제품을 높은 收率로 회수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새 공법은 반응탑에 들어온 촉매에 제오라이트계의 多孔質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가열하여 가스화된 경질나프타를 이 촉매에 보내면 脫수소環化로 옥탄價가 올라가는 구조로서 옥탄價 60의 경질나프타가 100이상의 高옥탄 휘

발유로 바뀐다. 경질나프타 외에 부탄, 프로판가스에서도 高옥탄價 휘발유가 만들어진다.

현재 高옥탄휘발유는 輕質나프타를 백금촉매로 개질시켜 생산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옥탄價 100이 그 한도이다. 그러나 새 공법을 사용하면 옥탄價가 높은 고성능 휘발유를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收率도 重質나프타를 백금촉매로 개질시키는 종래 공법에 필적하고 있다.

또 원료인 경질나프타의 가격 자체가 중질나프타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高옥탄휘발유의 생산비절감을 위해 세계의 석유회사들이 새로운 촉매생산법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경질나프타는 원유에서 중질나프타나 등유, 경유등이 연삼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에틸렌원료로 사용되어 왔다.